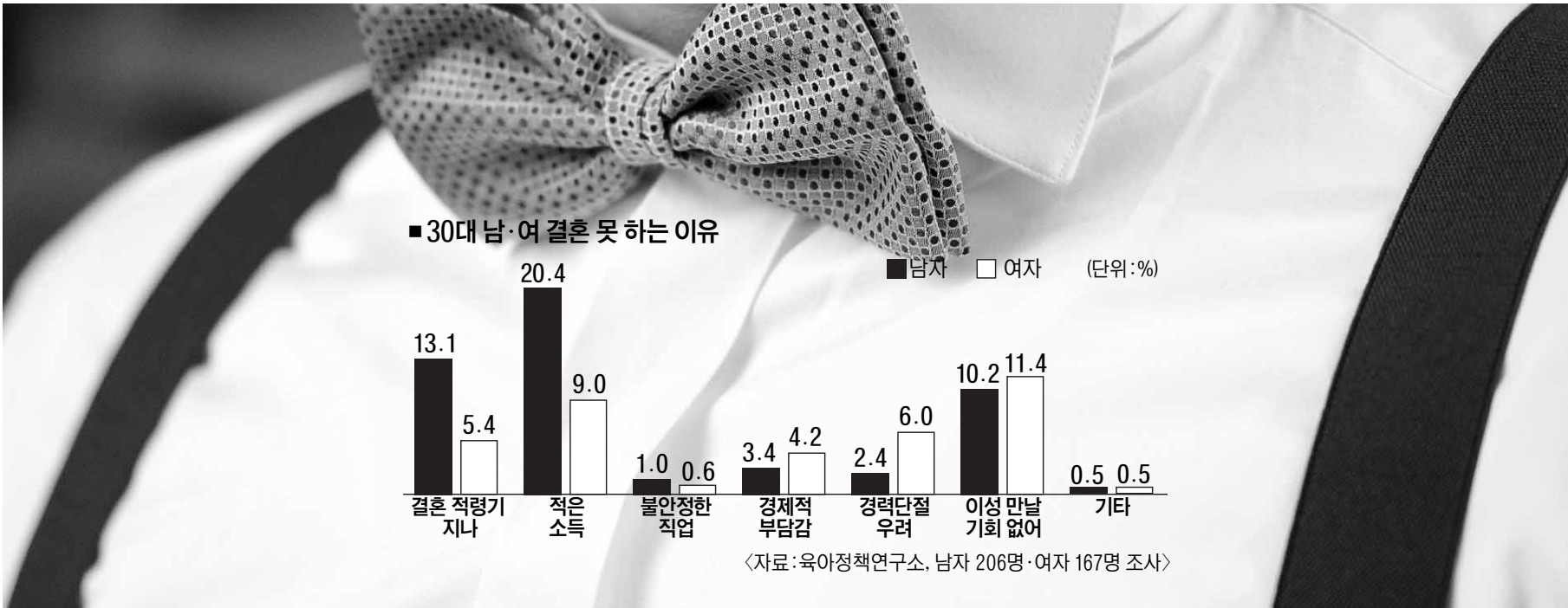




30대男 5명 중 1명 “돈 때문에 결혼 미룬다”

가족 부양 부담 크기 때문

여성 “혼자가 편해서” 압도적

20~30대 남녀 75% 결혼 연기

결혼 적령기의 30대 미혼 남성이 결혼을 미루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낮은 소득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연령대 여성은 결혼을 할 생각은 있지만 혼자만의 생활을 방해받고 싶지 않아 결혼을 미루고 있었다.

지난 28일 육아정책연구소가 공개한 ‘청년층의 비혼에 대한 인식과 저출산 대응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만 20~39세 미

혼 남녀 1073명을 조사한 결과 자발적 혹은 사회·제도적 이유로 결혼할 생각은 있으나 결혼을 미루고 있는 ‘결혼 연기자’가 74.5%인 799명에 달했다. 또 남성이 여성에 비해 결혼 의향이 있는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5.5%(274명)는 결혼을 할 의사가 없는 ‘비혼자’로 분류됐다. 결혼할 의사가 있는 미혼인 30대 남성 206명에게 이유를 물은 결과 ‘소득이 적어서’(20.4%)가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는 ‘혼자 사는 것이 편해서’(16.0%)가 두 번째를 차지했고, ‘결혼적령기가 지나서’(13.1%)가 뒤를 이었다. 반면 30대 여성 167명은 ‘혼자 사는 것이 편해서’(47.9%)라는 응답이 압도적으

로 많았다. 결혼을 하고 싶으나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결혼을 미루고 있는 셈이다. ‘이성을 만날 기회가 없어서’(11.4%)가 다음을 차지했다. 이외에 다른 응답 비중은 10% 미만으로 30대 미혼여성의 결혼 연기는 다분히 자발적인 이유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비혼자는 결혼할 의사가 없는 가장 큰 이유로 ‘자유로운 생활을 방해받기 싫어서’(33.6%)라고 답했다. 이어 ‘내가 누군가와 함께 살기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란 생각이 들어서’(16.8%), ‘자녀 출산 및 양육 등으로 인한 부담감 때문에’(14.6%),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커서’(12.0%)’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 의향과 결혼 연기의 자발성을 기준으로 보면, 자발적 결혼 연기자가 45.9%, 비자발적 결혼 연기자는 28.6%, 비혼자 25.5%이었다. 특히 남성은 비자발적 결혼 연기자 비중이 20대가 28.6%였지만 30대는 48.4%로 매우 높았다. 30대가 되면서 가족 부양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면서 결혼을 미루는 현상이 늘고 있다는 것이 연구자의 분석이다. 여성은 20~30대 모두 자발적으로 결혼을 연기한 비중이 각각 56.2%, 45.2%로 높게 나타났다. 30대 때는 비혼자 비중이 36%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초·중·고생 교육비 지원

24일까지 집중 신청 기간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2일부터 24일까지를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집중 신청기간’으로 운영한다.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학비와 방과후수강권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집중 신청기간 이후에도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신청한 월로 소급해 지원하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 결과, 기준 중위소득 50%(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23만원) 이하이면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교육비만 신청하려면 온라인(oneclick.go.kr 또는 online.bokjiro.go.kr)으로도 할 수 있다. /전문기자 ej6621@

엄마·아이 모두 건강한 모유수유법



‘예비엄마 건강교실’

광주시 서구는 임신 부들의 건강한 출산을 돕기 위해 ‘예비엄마 건강교실, D라인 모여라’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모유수유 성공법, 산전·산후 관리법, 신생아 돌보기, 아기 용품 만들기, 임신부 योग 등이다. 산모와 신생아 모두의 건강에 좋은 모유수유를 위해 전문 강사를 초빙해 모유수유 비법도 자세히 안내한다. 프로그램은 11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구보건소에서 진행된다. 프로그램 참여를 원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주민은 서구보건소 출산장려팀(062-350-4169)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구는 임신부들 건강관리를 위해 B형간염, 에이즈, 빈혈, 혈액형, 태독, 혈당, 간기능,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등 9종의 무료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임신제 및 철분제 지원, 영양플러스 사업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사업도 벌이고 있다. 서구보건소 관계자는 “임산부 산전교육이 출산을 준비하는 산모의 건강관리에 실질적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직장 맘 고충해결단 어디든지 갑니다”

광주시 노무사 수시 상담

광주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직장 맘 지원센터는 직장 맘들을 위한 ‘직장 맘 원스톱상담서비스’와 ‘찾아가는 고충해결단’을 진행할 계획이다. ‘직장 맘 원스톱상담서비스’는 직장 맘들의 모성보호와 권익증진을 위해 상근 노무사가 연중 수시로 노무상담과 정보를 제공하며 직장 맘들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다. 모든 상담자의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유지되며 상담을 원하는 광주지역 직장 맘은 직장 맘 지원센터(062-613-7982) 또는 빛고를 콜센터(120)로 전화하면 된다. 광주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홈페이지(http://woman.gwangju.go.kr)에서 온라인상담도 가능하다. 광주시는 맞벌이 비율이 7개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은 지역으로, 직장 맘 지원센터는 지난해 고문노무사를 통해 전화상담 94건, 온라인상담 33건 등 총 127건의 직장 맘 노무상담을 통해 직장 맘의 고충을 해결했다. 또 ‘찾아가는 고충해결단’은 공인노무

사, 보육전문가, 심리상담사 등 전문 상담인력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기업, 행사 및 교육, 대형마트 등 상업공간, 마을공동체 등 직장 맘의 왕래가 잦은 곳, 직장 맘의 삶이 있는 공간이면 어디든 찾아가 현장상담을 진행하며 현실적인 고충 해결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노무분야의 경우 협력노무사를 통한 문제 해결을 돕고, 보육·심리분야는 현장상담 후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최대 3회까지 심층 종합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직장 맘 지원센터는 직장 맘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역량강화 특강, 아빠와 자녀의 소통 기회를 제공하고 가사분담을 통한 일·가정양립 문화 확산의 하나로 아빠캐프 등 아빠프로그램 운영, 직장맘 육아에 지친 직장맘들의 심리치유를 지원하기 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다. 직장 맘 지원센터 관계자는 “일과 양육을 동시에 해야 하는 직장 맘들의 현실적인 고충을 경청하고 실질적으로 고충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지난 28일 광주 동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발대식에서 김성환 동구청장과 사업 참여자 400여명이 지역발전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광주 동구청 제공>

광주 동구 ‘노인 일자리’ 1797명 참여

광주 동구는 지난 28일 어르신들의 소득 보장과 사회 참여를 위한 ‘2017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 사업은 ▲공익활동 ▲시장형사업단 ▲인력파견형 등 3개 유형에 1797명이 참여한다. 이는 지난해보다 38명 늘었고, 예산도 37억원으로 전년대비 2억6000만원 증액됐다. 구체적으로 어르신 성취감 향상,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인 공익활동형은 노노케어, 취약계층 지원, 공공시설봉사, 경륜전수활동 등에 1387명이 참여한다. 또 소규모 매장 및 전문직종 사업단을 운영하는 시장형사업단은 제조판매형, 전문서비스형에 270명이 참여한다.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 업무능력이

있는 어르신을 해당 수요처로 연계해 근무시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받는 인력파견형은 장례지도사, 요양보호사, 경비원, 미화원 등에 140명이 참여한다. 사업 참여자들은 이날 동구청 대회의실에서 김성환 동구청장, 박대현 동구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가졌다. 이들은 조거작복식 등을 통해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의 어른으로서 모범을 보이자고 결의를 다졌다. 김성환 동구청장은 “어르신들께서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해 우리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자긍심을 갖고 멋진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노인일자리 사업을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